



# 비만치료제

## 요약

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여 음식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거나,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이다. 작용기전에 따라 식욕억제제, 지방흡수 억제제, 글루카곤유사 펩티드 유사체로 구분할 수 있다. 일부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기간 투여하도록 되어 있다.

## 외국어 표기

drugs for obesity(영어)  
肥滿治療劑(한자)

동의어: antiobestic drug

유의어·관련어: 다이어트 약, 살빼는 약, 식욕억제제, 食慾抑制劑, anorexiant, 지방흡수 억제제, 脂肪吸收抑制劑, 지방분해효소 억제제, lipase inhibitor, 글루카곤유사 펩티드 유사체

## 비만

비만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. 한국인의 경우 체질량지수(BMI)\*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한다. 장기간 에너지 소비량보다 과도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비만이 유발된다. 비만의 치료법에는 식사요법, 운동요법, 행동수정요법이 있다.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~1,000 kcal 정도 덜 섭취하도록 하며,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등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.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비만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 비만치료제를 추가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\*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, BMI): 체중(kg)을 키(m)의 제곱으로 나눈 값

## 약리작용

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억제하여 음식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거나,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비만을 치료한다. 식욕억제제는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, 포만감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. 지방흡수 억제제는 고열량인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의 체내 축적을 막는다.

## 종류

국내에서 사용되는 비만치료제는 크게 식욕억제제, 지방흡수 억제제,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(GLP-1)\* 유사체로 구분할 수 있다. 일부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단기간 투여하며, 장기간 투여할 수 있는 약물로는 식욕억제제 중 로카세린,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 복합제가 있고, 지방흡수 억제제, GLP-1 유사체 등도 있다.

그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서 생약 성분의 비만 치료제인 방풍통성산건조엑스, 그린티엑스, 오르소시폰가루+그린티분말 복합제 등도 비만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된다.

\*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-1(glucagon like peptide-1, GLP-1): 장 내벽의 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혈액 내의 포도당 수치에 상응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킨다.

## 식욕억제제

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, 대부분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항정신성의약품\*으로 분류되어 있다. 그러나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 복합제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. 펜터민, 펜디메트라진, 디에틸프로피온 또는 마진돌 함유 제품은 4주 이내로 단기간 투여하나, 의사의 판단 하에 만족할 만큼 체중이 감소된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. 부프로피온+날트렉손 복합제는 12주 이내에 체중이 감소된 정도를 평가하여 투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.

단, 로카세린은 현재 암 발생 위험 우려로 인해 '20.02.14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를 통해 제조사에 판매중지, 회수, 폐기를 권고하고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. 만일, 기존에 처방받은 로카세린

성분 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.

\* 항정신성의약품: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.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, 처벌규정이 적용된다.

### 지방흡수 억제제

지방흡수 억제제로는 오르리스타트가 있다. 지방을 분해는 효소인 리파아제를 억제함으로써 섭취한 지방의 약 30%를 소화 및 흡수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. 비타민 A, D, E, K 같은 지용성 비타민, 베타 카로틴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지용성 비타민을 오르리스타트 투여 최소 2 시간 후에 보충해 주는 것이 권장된다.

### GLP-1 유사체

리라글루티드는 GLP-1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,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지만, 포만감을 유발하고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도 사용된다.

Table 1. 국내 시판 중인 비만 치료제

구분	약물	제품 예	항정신성의약품	투여기간
식욕억제제	펜터민	디에타민 <sup>®</sup>	○	단기간
	펜디메트라진	푸링 <sup>®</sup>	○	
	디에틸프로피온	디피온 <sup>®</sup>	○	
	마진돌	마자놀 <sup>®</sup>	○	
	부프로피온+날트렉손	콘트라브 <sup>®</sup>	X	
지방흡수 억제제	오르리스타트	제니칼 <sup>®</sup>	X	장기간
GLP-1 유사체	리라글루티드	삭센다 <sup>®</sup>	X	

## 효능·효과

BMI가 30 kg/m<sup>2</sup> 이상인 비만 환자, 또는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kg/m<sup>2</sup> 이상인 비만 환자의 치료에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.

## 용법

비만치료제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.

- 식욕 억제제 중 펜터민, 펜디메트라진, 디에틸프로피온, 마진들은 불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늦은 밤에는 복용을 피한다.
- 식욕 억제제인 부프로피온+날트렉손 복합제는 서방정(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)이므로 그대로 삼켜서 복용하여야 하며, 분할하거나 씹거나, 으깨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오르리스타트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거나 또는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복용하며, 식사를 하지 않거나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.
- 리라글루티드는 피하주사로만 1일 1회 투여한다.

## 부작용

-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불면증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심, 구토, 심계항진\*이나 혈압 상승, 불안, 우울 등도 나타날 수 있다.
- 오르리스타트 주로 지방변, 복부팽만, 복통, 직장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.
- 리라글루티드는 주로 오심, 구토, 설사, 변비, 입마름,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.

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,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
\* 심계항진(palpitations): 심장이 빠르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

## 주의사항

### 식욕억제제

- 식욕억제제는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. 특히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는 정신적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- 내성이 나타나면 투여량을 증가시키지 말고, 중단해야 한다. 갑자기 투여를 중지시 피로나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감량하도록 한다.
- 소아, 임부, 수유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,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일부 약물은 폐동맥 고혈압, 판막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### 지방흡수 억제제

- 12세 미만의 소아, 임부,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.
- 면역억제제인 시클로스포린과 함께 투여할 경우 시클로스포린의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.

### GLP-1 유사체

- 18세 미만의 소아, 임부,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.
- 인슐린 대신에 당뇨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.